

# 범여주자 연석회의의 이견조율 진통

### '6인회의'서 제외된 군소주자들 반발

### 통합민주당 주자들 '13인회의' 불참

범여권 대선주자 6인 연석회의가 오는 4일 출범하지만, 초청받지 못한 군소주자들을 중심으로 연석회의의 참여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주재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혁규·전정배 의원 등 6명이 참석하는 범여주자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인 연석회의에는 김병상 신부, 박

형규 목사, 지선 스님 등 종교계 진보 인사들이 배석하기로 했고, 아직 대선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문국현 유원길별리 사장은 추후 합류를 종용키로 했다.

또 탈당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민경선추진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교문-대표단 회의를 갖고 김 전 의장 주재로 열리는 6인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내주중 13인 연석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첫 연석회의가 6인 중심으로 꾸러지는 데 대해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군이 사실

상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차별화되는 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은 2일 CBS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 "후보들이 연석회의를 한다니 어떤 건지 궁금한 데 그걸 제대로 한다면 저도 참석하겠지만 제대로 안 하면 참석 안 하겠다"면서 "(연석회의는) 우리 당을 탈당한 분들이 주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내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자 이해찬 전 총리는 6인 연석회의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다른 주자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양승조 대변인은 "당원인 만큼 당론에 따를 것이고 당 지도부도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할 때 한 달 가량 앞당겨질 것이란 주자들도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연석회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석 범위에 대해선 국경추 등이 결정할 사안이고 이 전 총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통합민주당 쪽 예비주자인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 이인제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은 연석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어서 국경추가 추진하는 13인 연석회의의 규모는 우리당 및 탈당 대선주자 8~9명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변수다.

한편, 문국현 사장의 경우 당초 8월 중순께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경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 달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우리당 당원과 간담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통합민주당에도 연석회의의 참여 권고” 이해찬 ‘대통합 역할론’ 설파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선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선 후보경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DA문제가 해결되면서 2·13 합의의 이행 단계에 들어서는 등 북핵문제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대통합 논의와 관련,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후보 등이 김근태 전 의장이 추진하는 범여권

연석회의의 참여를 약속했고 우리당을 탈당한 44명과 창당을 선언한 시민사회단체도 큰 흐름에 동의하고 있다”며 “통합민주당 쪽도 함께 하도록 설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낮은 지지율과 관련, “늦게 출발해 지금의 지지율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면서 “9월 경선에 들어가 봐야 어떤 형세일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하반기에 더 좋아지고 남북관계도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범여권의 승

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김두관 전 장관이 “골프 실력을 제외하고는 검증받은 것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저는 16년의 재야민주화 운동과 2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돈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출마 선언시 ‘검증된 후보’라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총리는 유시민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며 국민경선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의원·단체장 비리로 물러날 땐 한, 보선 공천 포기

한나라당은 2일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이 비리를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지역 공천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개정안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관련 형 확정자 등 비리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고, 공직후보자 신청시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기여도가 높은 사람과 여성, 장애인을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을 지방직원의 최고위원과 모든 당원협의회(옛 지구당) 운영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등으로 확대 재산뿐 아니라 병역과 납세명세까지 공개토록 하는 당원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 李 “한 집권해도 혁신도시 불변”

### 나주서 정책 행보... 차과 지지율 격차 10%p에 안도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 말을 기해 잇따라 공개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라이벌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크게 안도하며 2일 나주 혁신도시 추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6월 한달 간 계속된 범여권과 박 전 대표 측의 파상적 검증공세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지는 등 위기가감이 확산돼 왔으나 결과적으로 12~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검증 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캠프 일각에선 검증국면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24~27%대로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박근혜 한계론’을 은근히 퍼뜨리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캠프는 이 전 시장의 ‘NO 네거티브’ 선언과 무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경쟁 중심의 차별화 행보가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캠프는 이런 판단 하에 ‘무대응 마이웨이’ 기조를 더욱 견고히 하며 현장 위주의 정책 행보를 계속하기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2일 오전 나주서 금천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를 방문, 공사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엔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 현장을 방문, “장권이 바뀌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역시 인구 5만 이상의 자

족 기능 여부에 달려 있다”며 “우수한 초·중·고교를 만들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또 “호남운하가 완공되면 영산강의 물길이 나주를 거쳐 광주까지 도달하게 된다”며 “호남운하는 민자 유치로 조성되는 경우 운하와는 달리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 朴 “처남 김재정씨 부동산 의혹 해명을”

### 재산목록 검증위 제출해야... ‘李 부동산 게이트’ 총공세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측은 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언론의 잇단 의혹 제기에서 “정말 심어진 문제”라며 이 전 시장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 전 대표 측이 던진 메시지는 최근 그칠 줄 모르고 제기되는 이 전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점점 본선 승리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는 것으로, “불안한 후보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본선에서 예상되는 여론의 엄청난 검증공세와 관련, “불안한 후보보, 안정된 후보보”의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이날 이 전 시장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계속됐는데 이 전 시

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전국 47곳에 224만㎡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씨의 정확한 전체 재산목록 제출과 ‘소상한 해명’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최경환 중앙상 황실장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가가 나와야 한다”면서 “김씨는 재산목록을 당연히 검증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씨가 이 전 시장의 차명계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공동대변인은 “이번 건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이후 보도 몇몇하다”면서 “어떤 국민이 땅,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겠느냐”고 말했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 “철저히 따지지 않고 달랑달랑 대강해서 내보냈다가 본선에서 (옥천 땅) 51만평(168만㎡)을 (처남이)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소독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문서를 들이대고 따지면, 그래서 대(大) 낭패라도 보면 정권교체를 원하던 국민 입장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측의 ‘무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언론 기관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당 (검증)기구에서 책자를 내거든 보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연합뉴스

##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새롭게... **국제외식**

**아외 결혼식 가능**  
(부패)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한우류)

☎ (062) 262-2278

## KÄRCHER 독일카치 특별기획전

이제 청소는 **카치 로보크린**이 최고입니다!

**상할의 여유**를 즐기세요

☎ 문의전화 062-655-1022